

# LG G6 공개... 풀비전 한 손에 쏙

###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안전·편리성 담아... 18:9 화면비, 돌비 비전·HDR 10 지원, 인터치 기술 등

LG전자가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차기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6를 공개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산 호르디 클럽(Sant Jordi Club)에서 LG G6 공개 행사를 열었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은 "세계 최초 18:9 화면비를 적용해 한 손으로 다루기 쉬운 최적의 그림 감을 유지하면서도 화면은 키운 풀비전(FullVision)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했다"라며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 스마트폰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LG전자는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기술을 손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스마트폰에 담아내 최고의 사용 편의성을 구현했다.

LG G6는 스마트폰 가운데 처음으로 18:9 화면비를 채택했다. 18:9 화면비는 기존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볼 때 몰입도가 탁월하다.

LG G6의 5.7인치 QHD+(2,880X1,440) 해상도 풀비전 디스플레이는 1인치 당 화소수(Pixel Per Inch, PPI)가 564개다. 지금까지 출시된 LG 스마트폰 가운데 화소의 밀도가 가장 높다.

LG G6는 HDR(High Dynamic Range) 규격인 돌비 비전(Dolby Vision)과 HDR 10을 모두 지원한다.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LG G6가 처음이다. HDR는 화면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보다 깊이 있게 표현하는 화질 기술이다. LG전자는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복수의 HDR 규격을 지원한다.

LG G6는 LG디스플레이의 인터치

(In-Touch) 기술을 적용하고 터치 커버 글라스까지 얹어 화면 속 아이콘을 직접 만지는 듯한 터치감을 느끼게 해준다. 풀비전 디스플레이는 소비전력을 30% 줄였다.

아울러 LG G6는 철저한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았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최우선으로 반영됐다.

LG G6는 세계 기준을 뛰어넘는 혹독한 자체 품질 테스트를 거쳤다.

특히 배터리, 발열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기술에는 업계 기준에 그치지 않고 폭발, 발화 등에 이르는 데 이터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LG전자는 LG G6에 히트파이프를 적용해 기기 내부 열을 밖으로 배출하게 했다. 열이 많이 나는 부품끼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한다는 철학을 LG G6에 담았다. 사용자의 생활습관과 사용환경을 분석해 가장 필요한 기능들에 주안점을 뒀다.

LG G6의 최고 등급(IP68) 방수방진 기능은 먼지를 차단하고 1.5미터 수심에서 30분까지 작동할 수 있다.

LG전자는 구글 어시스턴트, 일격 AS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편의기능도 대거 탑재했다.

LG전자는 한국 소비자 특화 기능들도 LG G6에 탑재했다. 6월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 LG페이도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쿼드 DAC도 업그레이드했다. 신형 쿼드 DAC은 좌우 음향을 각각 세밀하게 제어해 사운드 균형감을 높이고 잡음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쿼드 DAC을 내장한 LG V20를 출시한 데 이어, LG G6로 명품 스마트폰 사운드 시장을 지속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 “퇴직연금, 수익률 1%대·수수료는 그대로”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수수료의 산정체계를 점검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수수료는 예전처럼 똑같이 받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최근 수익률이 1%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수수료는 고정돼 있다"며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2% 이하로 나타났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81%였고,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확정 기여(DC)형은 1.71%로 집계됐다.

통상 금융사에 평균 0.5% 정도 내는 연간 운용 수수료를 감안하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얻는 수익률은 1%대 초중반에 그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합치면 2%에 육박한다"며 "수수료를 떼고 나면 가입자가 손에 주어지는 게 거의 없어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모바일뱅킹 이용자 15%↑ 하루 이용액 3조원 돌파

모바일뱅킹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등록고객수가 1년 만에 15% 이상 늘고 하루 이용금액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중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수는 7468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15% 늘었다.

또 지난해 모바일뱅킹 일평균 이용건수는 5290만건, 이용금액은 3조1206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5.3%와 27.6%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자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1억2254만명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8750만건, 이용금액은 42조4247억으로 각각 12.2%와 5.3%씩 성장했다.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수가 전체 인터넷뱅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5%에서 61%로 높아졌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에서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4%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데 이어 2016년에는 61%까지 높아졌다. /뉴시스

## 저축은행 대출금리 한달새 1.09%↑

1월 일반대출 가중평균금리 11.75%·전월 대비 109bp↑... 예금 금리 2.12%·4bp↓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가중평균금리는 11.75%로 전월 대비 109bp(1bp=0.01%)나 상승했다.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지난해 2월(11.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상호저축은행 예금 금리는(정기예금, 1년 기준) 2.12%로 4bp 떨어졌다.

시장 금리가 지난해 말에 비해 하향 안정화되면서 예금 금리는 소폭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금리 상승을 유발했다.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2금융권도 3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비하다 보니 금리를 따라 올랐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많이 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며 "2금융권도 3월부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다보니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발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최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현정대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 제11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비은행금융기관들도 대체적으로 대출 금리 상승폭이 예금 금리에 비해 컸다.

신용협동조합은 대출 금리(4.60%)는 8bp 올랐지만 예금 금리는 1bp 상승하는데 그쳤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출 금리(3.92%)는 13bp 상승했고 예금 금리(1.95%)는 2bp 올랐다.

반면 상호금융은 대출 금리(3.86%)는 5bp, 예금 금리(1.63%)는 7bp 올라 예금 금리 상승폭이 더 컸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금리 급등으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291조3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3조5000억원(4.9%)이나 증가했다.

전체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50.5%에서 지난해 말 51.4%까지 확대됐다. /뉴시스

##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오르고”

1월 순수저축성예금금리 1.47%... 전월비 7bp↓  
1월 가계 대출금리 3.39%... 전월비 10bp↑

올해 1월 들어 시장 금리가 안정되면서 은행 예금 금리는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보증대출에 대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4년 만에 2%를 넘어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51%로 전월 대비 5bp(1bp=0.01%) 하락했다.

순수저축성예금금리는 1.47%로 7bp 내렸고,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1.65%로 2bp 떨어졌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1월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3.51%로 전월 대비 7bp 상승했다. 기업 대출(3.51%)은 전월 대비 1bp 오르는데 그쳤으나 가계대출(3.39%)은 10bp나 높아졌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3.16%,

+3bp), 집담대출(3.17%, +1bp), 예·적금 담보대출(3.00%, +2p) 등은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보증대출(3.23%, +16bp)과 일반신용대출(4.51%, +7bp) 금리는 크게 올랐다.

1월 예대금리차는 2.00%로 전월 대비 12bp나 벌어졌다. 예대금리차가 2%를 넘은 것은 지난 2013년 1월 이후 4년 만이다.

잔액 기준으로도 수신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랐다. 1월 은행 총수신금리는 1.15%로 전월 대비 1bp 떨어졌고, 총대출금리는 3.37%로 2bp 올랐다. 금리차는 2.22%로 전월보다 3bp 벌어졌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담보대출 대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뉴시스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곱게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1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80  
www.gangsanwine.com